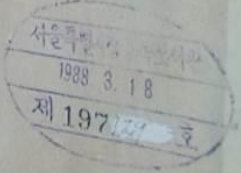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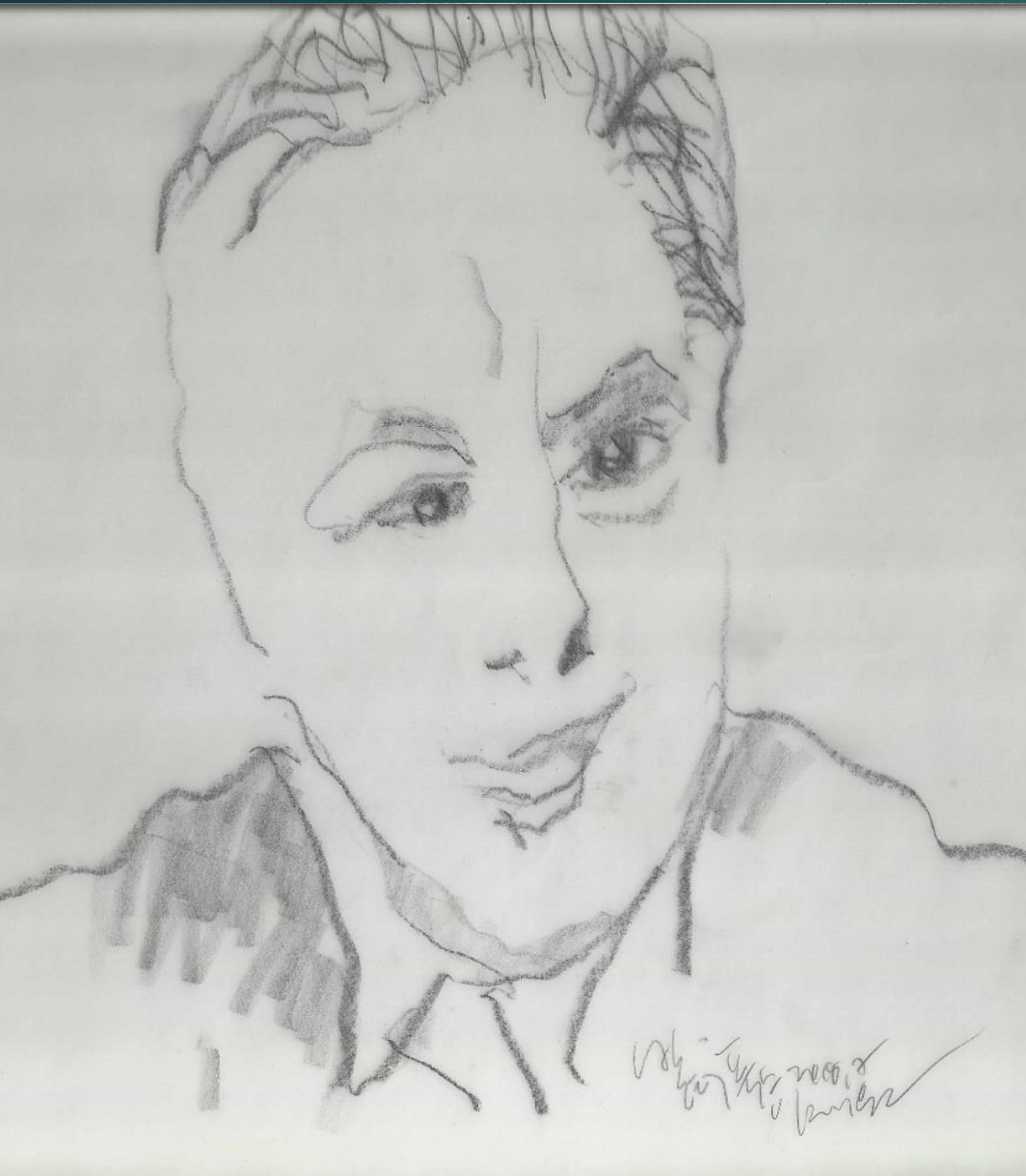
## 7-2 테마-레마 구조의 응용



7-2 테마-레마 구조의 응용  
2018. 8. (수요일)  
김민준







Schriftentausch

Huei-ch'ao's 慧超  
Pilgerreise durch Nordwest-Indien  
und Zentral-Asien um 726

VON

Dr. Walter Fuchs

in Peiping

Sonderausgabe aus den Sitzungsberichten  
der P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Phil.-hist. Klasse. 1938. XXX

Berlin 1939


Verlag d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in Kommission bei Walter de Gruyter u. Co.

(Preis R. 3.—)

## 『往五天竺國傳』 (726)

“위대한 한국인”(정수일 2010: 17)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은 고대 인도를 4년 여 동안 두루 여행하면서 기록한 (구법)여행기이자 “한 권의 두루마리로 된 필사본으로서, 책명도 저자명도 떨어져 없어진 총 227행(한 행은 17-36자, 한 장은 26-28행)의 잔간이다. 227행 중 결락자가 없는 완전한 행은 210행이고, 총 글자는 5893자로 한 행은 평균 28.1자이다. 따라서 잔간의 글자는 약 6379자(227행 × 28.1자)로 추산된다.” (정수일 2010: 44).

『왕오천축국전』은 8세기경 신라의 고승 혜초가  
인도를 여행하고 난 후 당나라에서 저술하였으며,  
법현/혜생/도영(337-422)의 『불국기』, 현장  
(596-664)의 『대당서역기』, 의정(635-713)의  
『대당서역구법고승전』과 더불어 당시 인도 및  
서역의 지역사정을 기술한 대표적인 4대 고전  
여행기로 간주된다.



돈황에서 발견된 이 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꺼리, 이를 테면 '원본인가 사본인가, 원본의 절락본인가 사본의 절락본인가, 혜초 본인의 저술인가 아니면 다른 누가 대신 써 준 것인가, 저술시기가 8세기인가 9세기인가, 혜초는 정말 신라인인가? 등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락 부분의 재구 문제이다.

이 강의는 텍스트언어학의 여러 가지 텍스트 생산  
기제들에 기대어 『왕오천축국전』 **결락 부분들의**  
**재구와 이미 재구 된 결락자들에 대한 텍스트언어**  
**학적 의미부여가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 방식은  
『왕오천축국전』에 대한 다양한 연구방식, 즉 1)  
**문학 측면에서의 연구**, 2) **세계사 측면에서의 연**  
**구**, 3) **문헌학 측면에서의 연구** 4) **고석(考釋) 및**  
**역주**, 5) **교감(校監)** 등과 더불어 새로운 연구 방  
식의 하나로 추가 될 수 있다.



# 돈황 막고굴







2010年12月12日 杭州西湖

*“Silk Road and Civilization Reconciliation”*  
the 2nd International Silk-road Conference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ilk-road Studies  
& the Institute of Dunhuang Studies, LZU (2016.9.26-30)



# 제목과 저자 그리고 상호텍스트성

돈황에서 발견된 『왕오천축국전』(이하 '돈황본')은 제목과 저자가 떨어져 나간 **잔간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1910년 중국의 **왕원록** 도사에 의해 발견되어 당시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던 프랑스의 **동방학자 펠리오**에 넘겨졌고, 그에 의해서 돈황본의 책명과 저자명이 밝혀졌는데, 이는 **순전히 9세기 초 혜림의 『일체경음의』라는 주석집** 때문이다. 사실, 펠리오는 돈황 막고굴의 17동인 장경동에서 발견된 돈황본을 얻기 **4년 전인 1904년**에 이 주석집의 도움으로 이미 『왕오천축국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 장경동 (17호굴)



伯希和在藏经洞内翻检劫掠文物  
Paul Pelliot examining manuscripts in the Library Cave

몇 년 후에 펠리오는 왕원록으로부터 넘겨받은 돈황본을 헤초의 『왕오천축국전』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감숙성에서 발견된 중세의 한 장서**”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불교문서들을 추적하는 가운데서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순례자들의 기록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 저는 **법현(의 여행기)도 오공(의 여행기)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정의 남해기귀내법전의 좋은 사본 하나가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 마침내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제가 **의정과 오공의 중간 시기에 해당하는 새로운 순례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저작이 불완전하기는 하나 저는 그 책명과 저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즉 『**일체경음의**』에는 **법현(의 『불국기』)에 관한 짧은 주석 바로 옆에 헤초 『왕오천축국전』에 관한 조금 더 긴 주석이 실려있습니다** ..... 저는 헤초책의 주석 어휘들 중에서 두세 개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크메르**에 관한 것과 또 하나는 아마도 **말레이 제국을 지칭하는 곤륜**이라는 어휘였으며, 세 번째 것은 틀림없이 **사울 즉 자불리스탄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어휘들의 순서로 보아 헤초는 **중국을 떠나서 남해를 거쳐 서북인도와 중앙아시아를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겠습니까**.” (펠리오 1908: 511 이하).

어떤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에 의해서 제목이 추정될 수 있다는 사실은 - 텍스트언어학적으로 볼 때 - 상호텍스트성과 관련 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크리스테바의 상호텍스트성 개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불가리아 출신이면서 파리에 활동했고, 정신분석가이자 문예학자였던 그녀는 바흐친의 '대화성'에 근거하여 문학작품을 텍스트 내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념의 목소리이며 텍스트의 역사성으로 이해했으며 (피스트 1985: 2 이하 참조), '연관성을 갖는 선행 텍스트와 이를 설명하고 평가 또는 주해하는 후행 텍스트 사이'에서 쥘레트 (1996)는 메타텍스트성을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왕오천축국전』과 『일체경음의』 사이에는 - 쥘레트의 용어를 빌리면 - 메타텍스트성이 존재하고 있다. 임의의 발화가 텍스트가 되는 성질로 이해되는 '텍스트성'이란 이것이 충족되어야만 온전한 텍스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 위와 같은 상호텍스트성이나 메타텍스트성의 존재는 우리가 헤림의 『일체경음의』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왕오천축국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왕오천축국전』에는 이전의 텍스트들이 숨어있음에 틀림없다.

- ▶ “여기서 한 달을 머무른 뒤 다시 서북쪽으로 걷기 시작하여 15일 만에 오이국에 이르렀다.” (법현 2013: 50)
- ▶ “이 오이국에도 승려들이 4천여 명이나 되었는데, 모두 소승을 배우고 있으며 의식이나 계율을 지킴이 철저하여 중국에서 온 어떤 승려도 이런 점에서 그들에게 미칠 수 없었다.” (법현 2013: 51).
- ▶ “이 나라는 토지가 기름져서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하였고 불법을 받들어 불교가 생활화되어 있었다. 승려들은 수만 명이나 되었는데 모두 대승을 배우고 있었으며 모두 무리지어 식사를 하고 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대게 집 앞에 작은 스투파를 세워 놓았는데 그 중 제일 작은 것은 약 두 장(丈) 가량 되어 보였다. 또 사방에 승방을 지어놓고 지나가는 객승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그밖에 필요한 물자들은 마련하여 두고 있다.” (법현 2013: 52).
- ▶ “[그곳으로부터] 700여 리를 더 가면 쿠차국에 이르게 된다.” (현장 2013: 602)

### 3. 결락 부분 재구와 주제 전개 방식

정수일에 의해 대략 40개(이와 달리 폭스의 독일어 번역본에서는 47개)의 장으로 구분되는 『왕오천축국전』은 개별 장마다 유사성을 띠는 주제 전개 방식을 택했을 것이고, 따라서 결락된 부분은 그렇지 않은 장의 부분을 참조하여 그 주제 전개 방식이나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돈황본의 첫 글자인 '보(寶)' 앞에 결락된 글자를 추정하기 위해서 동일 텍스트에서 이 글자가 등장하는 텍스트 환경을 자세히 살피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 페사리국(바이샬리)

“(上缺) ... [三]寶赤足裸形外道不著衣 ... (約十六字缺)[逢]食卽喫亦不齋也地皆平 ... (約十六字缺) 有奴婢將賣人罪與? 人罪人不[?] ... (約十五字缺)” (돈황본 1-3행).



▶ (결락)

- ▶ 1) [외도(이교도)는 삼]보[를 숭배하지 않는다].
- ▶ 2) [그들은] 맨발이고 알몸이다.
- ▶ 3) 외도는 [옷을] 입지 않는다.
- ▶ 4) ..... [약 16자 결락]
- ▶ 5) .....
- ▶ 6) [이들은] 음식을 보면 먹어 치운다.
- ▶ 7) [이들은] 재를 지키지 않는다.
- ▶ 8) [이곳의] 땅은 모두 평평하다.
- ▶ 9) ..... [약 16자 결락]
- ▶ 10) .....
- ▶ 11) [이곳에는] 노비가 없다.
- ▶ 12) [이곳에는] 사람을 파는 죄와 사람을 죽이는 죄는 다르지 않다.
- ▶ 13) ..... [약 15자 결락]
- ▶ 14) .....

‘시문구’란 말 그대로 텍스트 또는 단락의 시작 문구를 말한다. 정수 일에 의하면 『왕오천축국전』에는 총 23군데에서 시문구가 등장한다: “여행기 전문에 걸쳐 헤초는 그가 직접 다녀간 곳에 관한 기술에는 반드시 ‘어디서부터(從) 어느 방향으로(東, 西, 南, 北)行 얼마 동안(日, 月) 가서(行) 어디에 이르렀다(至)’ ... 라는 식의 시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본문에는 이러한 시문구가 모두 23군데 있는데, 이곳들은 그가 직접 가서 보고 현지 견문록들을 남긴 곳들이 분명하다.” (정수 일 2010: 82). 이러한 시문구는 『왕오천축국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쓰여진 법현의 『불국기』(법현 2013: 50 참조), 현장의 『대당서역기』(현장 2013: 602 참조) 등에서도 등장하는데, 당시의 구법 여행기라는 텍스트 유형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표지로 간주된다.

- '보' 앞 글자의 결락: 뒷 글자와 '어휘적 연대' 또는 '동위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 결락자를 '삼'으로 추정: '음식을 보면 먹어치운다'와 '재(齋)를 지키지 않는다'는 '삼보'를 지키지 않는 또는 공경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 '삼보'는 돈황본에서 20군데서 출현: '삼보'와 관련된 문장성분은 '그 나라의 왕과 수령 등'(33행), '[그 나라의] 왕과 수령 그리고 백성 등'(52, 61, 74, 76, 92행), '스스로 얻은 재물'(101행), '[대발률국, 사파자국, 양동국 사람들은]'(105행), '이 나라 왕'(124행), '왕과 왕비, 왕자, 수령 등'(125행) 등



따라서 '페사리국'장에 등장하는 '삼보'의 주어로 '그[페사리국] 사람들'이나 '외도(이교도)'가 가능함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2)와 3)사이의 관계로 보면 전자보다 후자로 추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삼보'의 주어를 '그[페사리국] 사람'으로 가정할 경우, 3)에 출현하는 텍스트 테마(구정보) '외도'를 가지고는 이전의 어떤 다른 문장과 연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삼]보[를 숭배하지 않는다]'와 '맨발이고 알몸이다'라는 신정보에 대한 구정보를 '페사리국 사람'이라고 추정하게 되면 3)에 등장하는 텍스트 테마인 '외도'는 이전의 텍스트소와 연결고리를 가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3)에서 '외도'는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문장에는 테마가 없어지고, 그렇다면 이 문장은 텍스트계속문장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 돈황본이나 한국어 번역본들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 폭스의 독일어 번역본에서 '외도'는 정관사 '그 die'와 함께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독일어에서 정관사와 결합하는 명사는 그 이전에 한 번 이상 등장했음을 의미함으로 1) 또는 1) 이전의 결락된 자리에 '외도'는 이미 한 번 이상 등장했음에 틀림없다. 이전에 등장하지 않고 새로 등장하는 표현은 텍스트시작문장으로서로는 가능하겠지만, 텍스트계속문장의 테마로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폐사리국' 장에서는 첫 부분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결락이 있는데, '[삼]보'의 앞부분을 제외하면 총 47자가 결락된 것으로 추정한다. (정수일 2010: 124 참조, 양한성 외 1984: 79 참조). 이것은 약 6-7개의 테마-레마-구조로 환원될 수 있는데,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돈황본 전체 글자 수와 이를 테마-레마-구조로 환산한 대략의 평균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돈황본에 실려 있는 약 육천 여 자가 비교적 테마-레마-구조를 판별하기가 용이한 –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레마가 존재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없는 회색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 독일어 번역본에 의해 대략 1100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었기 것이다.

따라서 '[삼]보'에서부터 이 장의 말미까지 대략 14-15개의 테마-레마-구조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는 연이어 등장하는 '구시나국' 장이 23개의 테마-레마-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만약 헤초가 비슷한 분량으로 두 장을 기술했다면 '[삼]보'의 앞에서는, 시문구를 포함한 7-8개의 테마-레마-구조가 결락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1) [T1] - [R1] [시문구]

2) ?

3) ?

4) ?

5) ?

6) ?

7) ?

8) [T3] - R8 ([삼]보) T3=외도

9) [T3] --- R9 (맨발, 알몸)

10) T3 ----- R10 (옷)

11) ?

12) ?

13) T3 ----- R13 (음식)

14) T3 ----- R14 (재)

15) T2 ----- R15 (지형) T2=페사리국

16) ?

17) ?

18) T2 ----- R19 (노비)


19) T2 ----- R20 (인신매매)

20) ?

21) ?



결락된 11)과 12)에서는 '외도'가 테마이고, 이 문장들은 상위 주제 파생식 테마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조심스레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필요한 것은 '외도'에 대한 백과사전적 지식일 것이다. 이를 테면: '바이샬리[페사리]국은 부처가 여러 번 설교를 했던 지역이고, 자이나교의 성지이자 24대 교주인 마하비라(기원전 540-468)의 출생지이다. 그가 죽은 후 천의파와 백의파로 분열되었는데, 정결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고행하며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전자를 백의외도(白衣外道)라 칭하고, 무소유의 이념에 따라 알몸에 요대만 걸치고 다니는 후자를 나형외도(裸形外道)라 부른다. 이들은 살상을 하지 않기 위해 공작새 꼬리나 소의 꼬리로 만든 비로 길 위에 있는 벌레를 쓸어 내며, 여성의 사회활동을 불허한다.' (정수일 2010: 126 참조).



그래서 11)과 12)의 테마로서는 여전히  
'외도'가 가정되고 이에 대한 레마로서 '살  
상을 하지 않는다'와 '공작새 꼬리나 소의  
꼬리로 만든 비로 길 위에 있는 벌레를 쓸  
어 낸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불허  
한다'가 등장할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